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

오성훈 · 남궁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3

남궁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좋은 보행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천과 경험, 설계기법을 정리한 책이다.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공무원이나 설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보행은 도시의 공공공간과 장소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연속적이고 입체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거리를 확보하는 보행자들이 많을수록 도시와 가로는 더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 위주의 도로와 교통시설은 공간적인 분리와 단절, 고립을 불러와 보행자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환경을 만들었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이러한 도시공간과 교통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지원하며, 침체된 공공영역을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이라는 말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일련의 사회적·제도적·정책적 노력이 거듭되어 오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보행환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매년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행환경에 요구되는 가치와 역할도 다변화되었다. 보행환경의

개선은 더 이상 안전이나 성능, 효율과 같은 기능성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넓고 평탄하고 튼튼한 보도, 더 많은 횡단 보도와 육교와 지하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접근만으로는 보행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일부 성공적인 사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모방한다면, 대상지의 특성과 맥락,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접근과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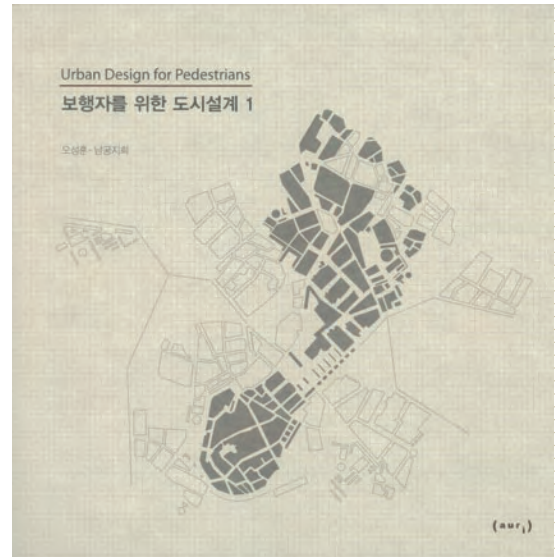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는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선도적인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각각의 배경과 여건, 현황과 문제점, 계획과 설계기법, 추진 과정과 개선효과 등을 실제 도시공간과 장소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내었다. 사례 간의 연관성과 차이점, 선택의 기준이나 쟁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주제와 맥락이 유사한 2개의 사례를 하나의 장으로 엮었고, 피상적인 소개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관한 도판과 분석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각 사례와 관련된 주요 설계기법과 개념에 대해서는 풍부한 배경 지식과 설명을 곁들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총 2권으로 기획하였으며, 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개 장, 6개 사례를 다루었다.

‘제1장 도심 가로와 보행 활성화’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상업적인 중심가로를 사람이 확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로 되살린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심의 가로는 교통 혼잡과 정체, 높은 지가와 주차공간 부족, 역사적 건축물과 도시조직의 보존, 공공영역과 도심 상권의 쇠퇴 등 도시환경의 물리적·기능적·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중첩된 공간이다. 이 때문에 가로 단위의 소극적 정비를 넘어 도시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오랜 기간 보행자전용구역으로 이용되어 오던 중심상업가로를 재단장한 슈투트가르트 시의 퀴니히스트라세 사례와 자동차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보차공존가로를 선택한 런던 시의 익지비션 로드 사례를 통해 도심의 가로환경 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 도심 교차로와 광장’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광장으로 이용되던 교차로를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로와 가로가 만나 형성되는 교차로는 공간구조와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단일 가로에 비해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여러 가로가 불규칙한 형태로 만나는 비정형의 교차로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 장에서는 도심 주요축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정형 교차로에 보차공존가로의 개념을 적용한 스위스 비엔 비엔 시의 젠트랄플라츠 사례와, 일련의 비정형 교차로들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가로를 대상으로 구간별로 도로 다이어트와 통행제한, 통행체계 개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도심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미국 뉴욕 시의 브로드웨이의 사례를 다루었다. 두 사례는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의 주요 교차로에서도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공공영역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 주거지역의 보행환경’에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기원된 본엘프(Woonerf, 생활의 정원)는 자동차보다 사람, 교통보다 가로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이 우선시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의 특성을 새롭게 정립한 개념으로 이후 인접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나, 유독 영국에서는 더디게 받아들여졌고 많은 절충과 변형을 거쳤다. 이 장에서는 초창기 ‘홀존’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추진된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공무원이나 설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대상지 중 하나인 플리머스 시의 모리스 타운 사례와, 홀존 이후에 노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민간영역에서 새롭게 개발한 대안적인 사업 유형으로 런던 시의 헤링게이 자치구에 실시된 DIY 스트리트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공간 조성 전략과 설계기법이 확산 및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역적·장소적인 맥락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였다.

각 사례가 처한 독특한 경험과 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거쳐 왔는지, 걸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이면에 있는 과정과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의 맥락과 함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실무적 판단과 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인식과 접근의 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DOCUMENTUM vol.0

아키라이프, 2013

엄윤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잡지계는 변환기를 겪고 있다. 월간 〈공간〉 〈건축문화〉 〈C3〉 〈PLUS〉 등의 잡지 이후에 한국의 건축작업과 비평을 중심으로 하는 격월간 〈WIDE〉와 정림건축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건축신문〉*이 새로운 형태의 잡지로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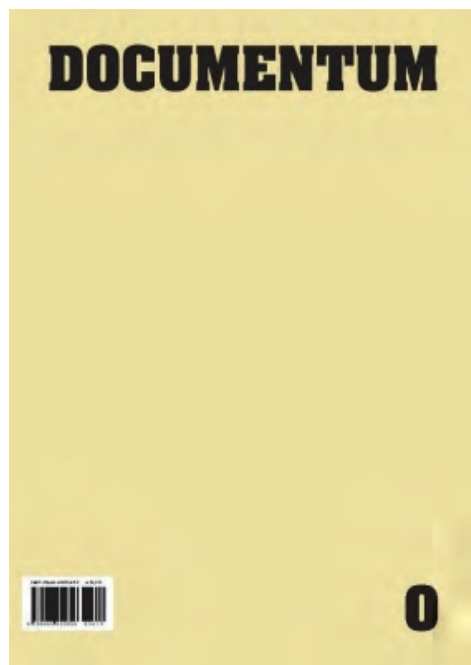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되는 〈DOCUMENTUM〉은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창간준비호다. 창간준비호 혹은 vol 0는 공식적인 창간 이전에 내부적으로 잡지발간 과정을 점검하고 외부적으로는 사전홍보의 성격을 가진다.

잡지의 첫 장에 자기소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다큐멘텀〉은 과정의 의미와 기록의 가치 위에서 건축 작업을 조명하는 건축 전문지입니다. 건축을 건물이라는 결과물로만 보여주기보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본 잡지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사람과 구매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DOCUMENTUM〉은 건축사진작가인 김용관이 발행인이며, 〈공간〉지에서 활동했던 김상호 기자가 편집장이다. 그래서 건축의 사진과 글의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DOCUMENTUM〉은 비평이 관여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물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잡지다.

* 정림건축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junglimfoundation.org/Newspaper>)에서 PDF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 독립출판의 형식으로 제작된 출판물이 유통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장소로 독립출판 서점이다. 대표적인 책방으로 더북소사이어티(<http://www.thebooksociety.org>), 유어마인드(<http://www.your-mind.com>)가 있다.

둘째, 본 잡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점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독립출판 책방**을 통해야 한다.

잡지는 status, work, documentary, closing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4개 부문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을 떠올린다.

“기구에서 시상(詩想)을 일으키고, 승구에서 그것을 이어 받아 발전시키며, 전구에서는 장면과 사상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결구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餘韻)과 여정(餘情)이 깃들도록 끝맺는 것이다.”***

기(起)에 해당하는 status는 기존의 잡지에서는 접할 수 없던 낯것의 상태다. 블로그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무소를 홍보하는 경우애나 볼 수 있었다. 우리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당 1쪽이 배정되었고, 우포자연도서관을 비롯한 12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프로젝트들의 성격도 근린생활시설, 학교, 축사, 공장, 전시관,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각 설계사무소가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사중,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각각 CNST, SD, DD, CD 등으로 표기하고 한 장의 이미지와 간단한 글로 소개한다. 다양한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리고 이 한 쪽을 위해서는 건축가들이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꼼꼼함과 원고 방향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잡지의 초반에 그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

“기사 한 쪽을 위해 네 번의 미팅, 여덟 시간의 인터뷰, 이를 이상의 직원업무를 선포 내어준 이가 있는가 하면, 회사의 파일 서버를 열어주고 사무실에 책상을 마련해 준 이도 있다.”

승(承)에 해당하는 work는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소개로 운동주 문학관, 장욱진미술관 등 7개의 건축물이 소개되었다. 건축물당 8~10쪽이 배정되었다. 건축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뷰

출처 : 두산백과사전

이로 참여한 소개글과 사진, 도면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잡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에는 주석도 달려 있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비평도 없다. 온전히 사진과 도면으로 건축을 접할 수 있도록 글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전(轉)에 해당하는 documentary는 진정으로 이 잡지에서 기대하였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준다. 32쪽이 온전히 단 하나의 프로젝트 소슬집(살것 양수인 설계)을 소개한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가졌던 생각들과 과정을 솔직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결(結)에 해당하는 closing은 간단한 건축물 개요를 제외하면 14쪽의 사진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매스터디스)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엄마와 집짓기>, <제가 살고 싶은 집은>, <아파트와 바꾼 집> 등은 집을 짓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서 건축이 특정 집단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해주었다. <DOCUMENTUM>은 비평이 관여하기 이전에 한국에서 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물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잡지다.

건축출판물이 다양해지는 것은 건축 분야의 일원으로서 즐거운 일이다.***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건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다시 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건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DOCUMENTUM>은 건축을 보여주는 잡지이며 다른 관점을 지닌 건축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식 발간과 더불어 지속될 <DOCUMENTUM>의 행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일 것이다.

<DOCUMENTUM> 외에도 건축도시 분야의 독립출판서적으로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담은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부산의 지역을 다룬 <HERE>, 버스를 통해서 서울의 건축물과 인터뷰로 이루어진 <PANORAMA>, 건축설계사무소 2~3년차의 이야기를 담은 <yes, I am a junior architect> 등도 발간 중이다.